

구역공과 제2권 (제11단원 : 교회) (제50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 본문 : 요한계시록 1:4-8(참고 2:1-3:22)
- 요절 :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찬송 : 383장(새찬송가 336장), 389장(새찬송가 351장)

공과내용

사도 요한은 노년에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비로운 계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뵈었으며 주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실상과 장차 될 일을 보이시고 이를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분부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냈는데, 특히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매우 번창하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지 40년쯤 지나자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열심과 감격이 식어진 채 냉랭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까닭에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2.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에게해를 향해 위치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고 이웃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계속되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3.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서 우상숭배와 황제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버가모는 사단의 위(位)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인 중에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까닭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함으로 영적 간음을 자행하였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우상숭배를 용인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4.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으므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5. 사데 교회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하고 거만하였고, 사데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로부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 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6.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성도의 수도 적었고 부요하지 않았으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장차 임할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이 교회의 신앙의 인내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7.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는 은행가와 상업가들의 도시로서 매우 부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곳 시민들은 자기들의 부요함을 과시하고 싶어하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역시 그런 세상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로 착각하였으므로 그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상의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곱 교회들은 2천년 교회사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 중에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있으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참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으며, 사데 교회와 같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물질적으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나 영적으로는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는 일곱 교회의 유형 중에 어느 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일곱 교회의 장점들을 본받고 그들의 단점들을 경계하여 물리치는데 힘씀으로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여김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